



전국 최고의 장류품질을 자랑하는 순창군이 장류원료 계약재배와 재배지원 사업을 진행해 원료부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 순창군, 장류계약재배 '차별화'

### 건고추 7만5000근 수매... 가격폭락 걱정없이 안정적 소득 보장

전국 최고의 장류품질을 자랑하는 순창군이 장류원료 계약재배와 재배 지원 사업을 진행해 원료부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건고추 7만5,000근의 계약재배량을 (주)대상에서 수매하고 있다 밝혔다. 이미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서 수매한 건고추도 16,800근에 이른다. 겉보리 40kg 2317마가도 수매가 끝났다.

계약재배는 농가들이 가격폭락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순창산 원료로 장류제품을 생산해 순창장류제품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건고추 이외

에도 메주콩 22만1,300kg, 찹쌀 40kg 385가마 분의 계약 재배량도 11월 중 수매할 계획이다.

또 (주)순창장류에서도 메주콩 계약 재배분 500톤을 수매할 계획이다.

군은 계약재배 이외에도 품질이 우수한 지역의 고추와 논콩을 장류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올해 19억을 확보해 생산장려금 및 유통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고추의 경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역 내 논, 밭 구분없이 1,000㎡ 이상을 재배하는 농민이다.

생산장려금으로 ha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콩의 경우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지역내 지목이 답인

필지에 1,000㎡ 이상 재배하는 농민이다. 생산장려금은 ha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통 장려금은 고추는 ha당 50만원, 논콩은 ha당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재배와 순창장류원료 재배지원 사업이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장류업체들도 지역의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공급받아 소비자 신뢰도 꾸준히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이미 독보적 장류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장류산업을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도 신뢰 받는 장류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올해도 이어가

### 조선동·대산초등학교에 설치

빗물을 재활용하는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이 올해도 이어 가고 있다.

강살리기 남원시네트워크는 2015년 빗물저금통 1호에 이어 올해에는 조선동 메가센트럴아파트(2호)와 대산초등학교(3호)에 설치했다.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빗물저금통은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에게는 물 사랑 환경의식을 교육할 수 있다.

빗물저금통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장 탱크로 건물의 청소용수, 조경용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

빗물저금통은 집중 호우 시에는 흘러가는 빗물의 양을 줄여 홍수를 예방할 수 있고, 가뭄에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 할 수 있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호우로 인한 비점오염원의 해결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강살리기 남원시네트워크는 빗물을 재활용하면 물 부족을 해소하고, 하수도 부하를 경감시키며 특히 상수도 사용량을 감소시켜 공공요금을 줄이는 등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산초등학교 통수식에 참여한 강용구 도의원은 "환경교육과 환경관련 사업이 남원지역에 확산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강살리기 남원시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학교 내 빗물저금통 설치를 통해 환경교육과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국립돌리사

### 임실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임실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3억원으로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20% 수준인 6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정리단을 부서별로 편성·운영한다.

정리단은 현금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의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변호관 영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 9일 '삼승 체납차량 전국 변호관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차량소재지 및 최근 주정차 단속 지역 위주로 추적 영치활동에 나서 과태료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에 납부하는 세외수입은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주재원'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한글공부방 시화전 개최

순창군이 지난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군립도서관 로비에서 '순창군 한글공부방 시화전'을 열어 관람객들의 가슴 뭉클한 감동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성인 문해교육의 중요성도 알리고 있다.

'문해, 인생에 글자꽃이 피어나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시화전은 군립도서관, 순창읍 협성교회, 적성면 전원교회, 유등면 오교교회, 동계면 동성교회, 풍산면 오산교회, 구림면 정안교회, 7개 소 한글공부방에서 한글을 깨친 70~80대 어르신 학습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직접 도전한 시화 10여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평생 동안 한글을 몰라서 겪은 서러움과 삶의 애환이 글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어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시화전에 참여한 잠암교회 이모씨는 "농사일과 집안 사정으로 어렸을 적 한글을 배울 기회가 없어 평생 한글을 모르고 살다가 70대에 잠암교회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나서 편지를 읽을 수도 있고 버스기사에게 묻지 않고 노선을 읽고 타면서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전했다.

군은 한글을 몰라 소외받고 있는 비문해 어르신 및 다문화여성들을 위해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완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수요자들의 높은 만족도 속에 완료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올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권기금과 군비 1억6,800만원 등 총 3억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5동의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 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2007년도부터 시작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355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보수부문을 경·중보수로 구분해 동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을 비롯해 부엌, 화장실리모델링, 도배·장판, 보일러 등 맞춤형 집수리를 시행해 전년보다 1.5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군민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찾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삼계면 두월리 '말천방들노래'가 임실군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됐다.

# 제1호 말천방들노래 향토문화유산 지정

### 임실군 향토성·역사성·유지·전승 위한 자발적인 노력 '결실'

삼계면 두월리 '말천방들노래'가 임실군 무형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됐다.

임실군은 최근 신평우 부군수(위원장), 최성미 임실문화원장, 전경미 예원예술대 교수, 이상수 전북대 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 등이 참여한 '향토문화유산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임실의 소리 '말천방들노래'의 향토성, 역사성을 비롯해 유지·전승을 위한 '말천방들노래전승보존회'의 자발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해 무형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했다.

또한, 임실현충증병풍(유형), 삼

계석문, 단구대, 삼청동비(기념물)도 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말천방들노래'는 삼계면 두월리 일대에서 전해오던 농요로 지역 전형적인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문열가, 모심기노래, 연계타령, 방이타령, 사랑가, 어휘싸오, 산타령 등 8개의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자발적으로 조직된 '말천방들노래한마당축제위원회'는 전통문화를 마을을 재생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들노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어린 나이로 참여한 김준성 어르신을 모시

고 들노래 연습을 하며 지난 2014년 '말천방들노래전승보존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마을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돼 2회째 '말천방들노래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평우 위원장은 "임실문화를 맛, 소리, 향기 등으로 기억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며, "말천방들노래의 복원을 비롯해 유지와 전승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군 문화관광체육과(☎0640-2315)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옥천인재숙 인재양성 요람 증명

### 사관학교 2차 합격생 3명 배출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올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사관학교 2차 합격생을 3명 배출하면서 인재양성의 요람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군에 따르면 2017학년도 사관학교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1차 합격생 8명 중 육군사관학교 1명, 해군사관학교 1명,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 등 총 3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중 국군간호사관학교 1명은 수시로 최종 합격함에 따라 수능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학교에 최종 입관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순창군 옥천인재숙에서는 비합격한 인성과 국가관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5년 최초 사관반을 운영하였으며 첫째 2명 최종합격생을 배출하고 올해도 2차 3명 합격(최종 1명)을 배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재수생 등

원했다.

특히 올해는 보수부문을 경·중보수로 구분해 동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을 비롯해 부엌, 화장실리모델링, 도배·장판, 보일러 등 맞춤형 집수리를 시행해 전년보다 1.5배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주거급여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군민에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찾아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을 진행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합격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차 시험 종료 후 인재숙에서는 개별면접과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이 이루어지는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일 새벽 6시 기상 후 강사들과 함께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심층 모의면접을 통한 민간의 준비를 기울여 왔다.

또한 작년에 시험을 봤던 선배들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인재숙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관학교 견학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예정이다.

향년 옥천인재숙은 2003년에 개원해 2015년 127기까지 수료생 492명을 배출하였으며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